발간등록번호
54-3520000-000114-14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성 교육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연수구 YEONSU-GU

ΔΗΜΟΣ ΛΑΡΙΣΑΙΩΝ

제작지원 유네스코 GNLC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회원도시,
라리사시(그리스), 연수구(대한민국)
공동발간 라리사시(그리스), 연수구(대한민국)
발 행 월 2021년 10월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과

저자
- 그리스 라리사시 학습도시팀: 드미트리 델리야니스, 클레오니키 뜨시우구, 비키 고타, 안토니스 무셀로스
- 서론 저자: 테드 플레밍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 성인교육과정 부교수)

한국어판
- 번역수정: 홍현숙
- 교　　정: 닐 드림슨(한국뉴욕주립대학교 부교수)
- 감　　수: 한숭희(서울대학교 교수)

원제: Citizenship education for democratic and sustainable communities

---

본 책자에 포함된 견해, 자료의 선정, 진술된 의견은 모두 저자에 의한 것이며,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라리사시, 연수구의 공식적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책자에 사용된 지명 및 자료의 제시 방식은 특정 국가 또는 영토, 또는 정부의 법적 지위나 특정 국가의 국경 또는 영토 경계의 제한과 관련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라리사시, 연수구를 대표하는 어떠한 입장 표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책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the Attribution-ShareAlike 3.0 IGO (CC-BY-SA 3.0 IGO))라이선스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sa/3.0/igo/)에 따라 오픈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본 책자의 내용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유네스코 개방형 정보 저장소(the UNESCO Open Access Repository)((http://www.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sa-en)의 사용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라이선스는 이 책자의 텍스트 콘텐츠에만 적용됩니다.

UIL/2021/ME/H/4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성 교육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연수구
YEONSU-GU

ΔΗΜΟΣ ΛΑΡΙΣΑΙΩΝ

책자 소개

본 책자는 독자들이 평생학습체계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본 책자는 도시와 시민들이 정규 및 비형식교육의 중요한 영역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발전시키고,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시민성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책자의 내용은 2020년에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와 '지역사회에서의 시민성교육 강화'라는 주제로 지난 2020년 11월 12일부터 13일, 양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된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국제회의에서 다룬 도시별 사례 연구와 참여 전문가들의 기조연설 및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의 말

유네스코 GNLC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들을 대신하여 이 책자의 출판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라울 발데스-코테라(Raúl Valdés-Cotera)의 총괄 아래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신 UIL의 프로그램 전문가 크리스티아나 니콜리차-윈터(Christiana Nikolitsa-Winter), 에디스 해머(Edith Hammer), 마리 맥컬리(Marie Macauley)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작을 담당한 연수구청 평생교육과의 홍현숙, 정소영, 김지선, 추예린과 집필을 담당한 라리사시 학습도시팀의 드미트리 델리야니스(Dimitris Deligiannis), 안토니스 무셀로스(Antonis Moutselos), 클레오니키 뜨시우구(Kleoniki Tsiougou), 비키 고타(Vicky Goutha), 마지막으로 테드 플레밍(Ted Fleming)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Contents

06 전문가 서문

08 코디네이터 도시 발간사

10 서론

12 축약어 및 기본 용어 정의

13 1. 시민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견해
- 2020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국제회의

17 2. 클러스터 설문조사: '학습도시의 시민성교육 이행 현황'
2.1. 시민성교육 활성화 정책
2.2. 시민성교육의 주요 대상
2.3. 시민성교육 시행 기관 및 이해관계자
2.4. 팬데믹 기간 동안의 시민성교육

39 3. 결론 및 미래 전망

42 마무리하며

43 별첨 : 유네스코 GNLC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회원도시

전문가 서문

유네스코의 2015년 **성인 학습 및 교육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RALE)는 성인 학습 및 교육의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문해력, 직업 훈련, 시민성교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이 가운데 시민성교육의 발전이 가장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개발도상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도 시민성교육은 눈에 잘 뜨이지 않고, 제도화되지도 않았으며, 대부분 무시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성교육은 압도적으로 초등 및 중등교육 수준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반면, 유아교육, 고등교육, 성인 및 비형식교육 등의 단계에서는 상당히 간과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자에 실린 선진 학습도시의 사례 연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 도시들은 각각 자신의 도시 정책 안에서 시민성교육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도시들은 여러 다양한 유형의 시민성교육, 예컨대 지역공동체 교육, 민중 교육, 혹은 성인교양교육 등을 통해서 시민성이라는 것이 보편적 차원뿐만 아니라 맥락별 다양성을 가진 것이며, 또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사회를 형성해가는 '집단지성'을 구현하고 각각의 독특한 자각성을 배양하는 가운데 각 도시가 가진 정치사와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해왔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습도시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될 경우 그것은 구성원들에게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한숭희

이 책자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끄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1) 평생학습과 오늘날의 도전 과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 (2) 지역공동체의 오랜 역사와 보편적 타당성을 고려한, 공동체 학습을 위한 새로운 체계로서의 학습도시, (3)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민주주의, 자유, 인권에 대한 위협의 증가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한 교육 분야인 적극적인 시민성입니다.

최근의 발전 상황은 시민성교육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한편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는 점(6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최근 추산됨) 및 그에 따라 교육 및 학습의 역할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고, 안정적이고 역동적이며 굳건한 민주주의를 수립하고 시민의 능동적이고 비판적이며 깨어 있는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습도시는 지역사회 학습의 가장 훌륭한 전통을 담아내는 동시에 진일보한 개념과 평생학습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체계는 진정한 사회 변혁과 모든 계층을 위한 교육과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도시 파트너십, 이 양쪽 모두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학습도시는 실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길을 닦을 수 있는 일종의 시민성을 육성합니다. 도시의 학습 환경에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위기에서의 '탈출구를 교육'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적극적인 시민들'입니다.

베오그라드 대학교, 국제성인교육협의회(ICAE) 사무총장

카타리나 포포비치

코디네이터 도시 발간사

연수구는 2018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그리스 라리사시와 함께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훌륭한 동료가 되어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와 라리사 학습도시팀과의 협업으로 다른 도시들과 지식과 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며, '배우고 행동하고 나누는' 학습 실천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 속에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능동적인 기여자가 될 수 있도록, 세계시민성 고취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의 관심과 요구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학습도시로서,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지역의 공동체 활동과 온·오프라인 소통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역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함께 돌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장을 끊임없이 제공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GNLC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회원도시들의 다양하고 뜻깊은 활동이 담긴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성교육」이 세계시민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도시와 지역사회의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께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남석

라리사(Larissa)시가 유네스코 GNLC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의 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된 것은 큰 영광이었고, 시민성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우리 시의 노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역사회를 힘들게 하는 시기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연수구의 뛰어난 팀 및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의 풍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는 도시 간 유익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는 전 세계의 도시와 만났습니다. 우리는 모범사례를 나누고 민주주의의 미래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이 책자는 이러한 대화의 결과를 담은 것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학습도시는 비판적 사고와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라리사에서는 도시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고 종종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이며 이는 교육, 인도주의적 가치,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공익에 대해 말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나침반으로 삼아,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시작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 라리사 시장

아포스톨로스 칼로야니스

우리의 근본.
젊은 날의 경험.
소박한 사람들.
이러한 것들은 뒤집히지 않는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장미와 부겐빌레아가 피어난 아름다운 뜰.
인도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서로에게 편히 건넨 아침 인사.
이웃이라는 개념.

•

아포스톨로스 칼로야니스, 라리사시장, 2021

서론

모든 도시의 시장과 시민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지역과 도시에 대해 깊은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6,000년 동안 보호, 안전, 그리고 함께 살기에 더 좋은 장소를 위해 도시를 찾아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우루크(Uruk)가 건립된 이래 천 년 동안, 도시는 글쓰기가 시작되고 거대한 건물이 세워지고 예술이 창조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광범위한 무역, 조세체계, 기념물, 미술과 공예품, 생산성 향상, 정부 등의 시작과 발전 모두를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이집트, 중국, 그리스에서 문자가 발명되면서 최초의 학교가 생겼습니다. 역사에는 특히 기근, 질병, 전쟁의 시기에 도시의 안전을 찾는 사람들의 위대한 활동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는 항상 약속된 위대함의 은유이자 상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학습이 도시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도시가 학습에 대한 원동력과 지원을 제공해 온 방법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도시가 자유(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지만, 이렇게 창조되고 만들어진 공간에 누가 속할지 결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은 도시가 기만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이 강제 이주와 노숙 생활로 이어지기도 하고, 부동산 소유자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내며, 여러 나라와 지역의 시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대도시가 환경오염, 범죄,

노숙자, 대규모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시민, 많은 경우 새로운 이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삶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질문이 지역사회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학습과 시민성교육을 활용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경제발전에 대한 계속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 발전이 경제 발전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은 양쪽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이 점이 평생학습에 대한 세계적 열의와 관심에 의해 촉발된 학습도시라는 개념의 중요한 동기입니다. 학습도시의 목표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 발전을 이루며 도시 내 사회문화적 삶과 평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여러 도시들이 학습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신들만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것과 행동해야 하는 방식에 도전합니다. 지식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면서도 새로운 불확실성과 위험으로도 이어집니다. 16세기 유럽의 새로운 지식은 조류, 바람, 별을 이용한 세계 항해와 관련되어 나타났고, 이는 또한 식민지 건설과 문화, 종교 및 언어의 확산,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 온 질병 등의 위험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발전과 위험으로 인한 위기는, '신세계'와 유럽의 구세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말하자면, 다루는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미래로 가는 길을 학습으로 밝힌다, 이것이 학습도시가 선택한 길입니다.

기후변화, 전쟁, 대규모 이주, 난민, 정치 불안,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 위기, 경제문제, 급속한 기술 변화 등 오늘날 세계의 계속되는 위기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환경오염, 배척, 빈부 격차의 증가 등입니다. 어떤 위기는 실존적 위협이 되며, 모든 위기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한 방법뿐만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학습은 엘리트 집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모두가 성취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생활, 생존, 우리의 웰빙은 시민의 학습에 달려 있으며 시민성교육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시민의 것이든, 시민에 의한 것이든, 시민을 위한 것이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정언명령입니다.

Οι ρίζες.
Τα βιώματα της νεανικής ηλικίας.
Ο κάμπος.
Αυτά δεν ανατρέπονται. Είναι καθισμένα μέσα μας.

Οι όμορφες αυλές με τις τριανταφυλλιές, τις μπουκαμβίλιες.
Τους ανθρώπους να κάθονται έξω απ' αυτές στα πεζοδρόμια.
Η καλημέρα που έλεγε με ευκολία ο ένας στον άλλο.
Η έννοια της γειτονιάς.

Απόστολος Καλογιάννης, Δήμαρχος Λάρισας, 2021

축약어 및 기본 용어 정의

UIL(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유네스코 GNLC(The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는 지방자치단체가 영감과 전문성, 모범사례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적 정책 중심의 네트워크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에 의해 2012년 출범되었다.

GNLC 클러스터(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클러스터, GNLC clusters):
유네스코GNLC는 특정 주제에 대해 학습도시 간의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2019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제4차 학습도시 국제회의에서 7개의 주제로 나눠진 클러스터를 조직했다. 7개 클러스터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교육; (2) 공정과 포용성; (3) 교육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4) 세계시민성교육; (5) 기업가 정신; (6) 건강과 웰빙, 모두를 위한 교육; (7) 문해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Cluster on citizenship education/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는 57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리사(Larissa)시(그리스)와 연수구(대한민국)가 코디네이터 도시로서 활동하고 있다. 클러스터 회원도시들은 유네스코 세계시민 및 평화교육분과의 많은 지원 아래, 시민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평생학습 관련 정책을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번역 일러두기

1. Global citizenship, Citizenship은 세계시민성, 시민성으로 번역하였다.
2. Citizenship education은 시민교육, 시민권교육 혹은 시민성교육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본 책자에서는 이 가운데 시민성교육으로 통일하여 번역하였다. 본 책자에서 언급하는 시민성교육은 세계시민성교육을 포함하여 지칭한다.
3. 외국 도시 및 인명의 경우, 최대한 현지 발음을 참고하였다.

시민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견해

2020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국제회의

1 시민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견해

2020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국제회의

유네스코 GNLC의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는 '지역사회에서의 시민성교육 강화' (2020. 11. 12. ~ 11. 13.)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유네스코 학습도시가 온라인으로 모여 시민성교육과 관련된 모범사례와 현재의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이 회의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 지원하에 그리스 라리사시와 대한민국 연수구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2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온라인에서 토론에 참여하며 서로의 견해를 나눴습니다.

이 회의에는 많은 도시들의 시장과 부시장은 물론, 성인 및 청소년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르엔 월스(Arjen Wals, 유네스코 사회학습 및 지속가능발전학부장,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카타리나 포포비치(Katarina Popović,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대학교, 국제성인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카를로스 토레즈(Carlos Torres, UCLA 파울로 프레이리 연구소 창립 이사), 세실리아 바르비에리(Cecilia Barbieri, 유네스코 세계시민과 평화교육 분과장), 알렉시스 코코스(Alexis Kokkos, 그리스 성인교육협회), 디비나 프라우마이그스(Divina FrauMeigs,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미디어사회학 대학), 요안나 라리오토(Ioanna Laliotou, 그리스 테살리아 대학교), 브리오니 호스킨스 (Bryony Hoskins, 런던 로햄턴 대학교), 테드 플레밍(Ted Fleming,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 올가 츄르바(Olga Tsiourva, 그리스 테살리아 노동청 지역 관리자), 로베르토 게바라(Roberto Guevara, 국제성인교육협의회 회장), 퍼걸 피네건(Fergal Finnegan, 아일랜드 메이누스 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지 쿨라우지디스(George Koulaouzidis, 그리스 오픈대학교, 유럽 성인교육협회EAEA 이사회), 애쉴리 스테파넥 록하트(Ashley Stepanek Lockhart, 국제 교육 및 개발 연구컨설턴트) 등 시민성교육 전문가들은 기조연설자로, 다른 분들은 세션 진행자로 참여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ONLINE CONFERENCE
Strengthening Citizenship Education at Local Level
LARISSA (Greece) - YEONSU (Republic of Korea)
UNESCO GNLC Cluster on Citizenship Education

기조연설에서는 인권,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포용성, 민주주의, 디지털 세계에서의 도전과 더불어 시민성교육, 문화, 지역전통을 육성하는 NGO의 역할 등 시민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많은 질문이 제기되었고 해결책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대표자들은 도시가 구현한 모범사례와 시민성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 도시에서는 시민성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과 파트너십, 공개회의,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의 추진(대한민국 부천시 및 연수구, 폴란드 그디니아), 문화 간 이해와 평화로운 개발 촉진(이란 이슬람 공화국 시라즈), 모든 사람의 학습 기회 보장 모범사례(브라질 상파울루, 그리스 라리사, 대한민국 광명시), 이주민 및 난민 통합 프로젝트(코스타리카 에스카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추진사업(이집트 아스완, 대한민국 수성구 및 당진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조치(그리스 이라클리온)와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실행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시장, 정치인, 학자들 사이에 주목할 만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리사시의 칼로야니스 시장이 언급했듯이, 우리는 '근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점들이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언뜻 보기에도 여러 도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둘째,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이 이러한 도전들로 끊임없이 유도하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점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많은 대표자들이 더욱더 민주주의가 최선의 해결

책이라고 주장했으며 교육이 지닌 전통적인 민주적 가치가 시민성교육을 뒷받침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무엇이 훌륭한 시민, 즉 책임감 있고, 배려하며, 모두가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모두가 솔선수범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지에 관한 질문의 답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미래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면에서 지역 차원에서 시민성교육의 주요 전략으로 여겨지는 실행 가능한 다양한 견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현재와 미래의 교육을 위한 주요 학습 요건인 비판적 문해력의 필요성 : 이것은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가 매우 명확하게 표현한 비판적 의식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 세계 평화의 두 가지 위협요소인 빈곤과 불평등을 포함, 평화를 이루기 위해 도외시되기도 하는 시민성의 힘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 훌륭한 시민교육자의 역할과 예술의 중요성, 시민성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의 활용
- NGO의 중요성과 구심성: 환경과학 및 인권 등의 분야에 대한 NGO의 관심과 전문성은 학습도시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전문성, 헌신이라는 방대한 원천을 더해줍니다.
- 시민성교육의 임무는 개인의 생존이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그에 따른 결과 등 글로벌 쟁점들과 연결된 세상에 살도록 시민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 청소년과 함께 일할 때의 어려움과 '당신이 없이 당신을 위한 것은 없다'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 수립)는 원칙

클러스터 설문조사

‘학습도시의 시민성교육 이행 현황’

20 2.1. 시민성교육 활성화 정책

26 2.2. 시민성교육의 주요 대상

31 2.3. 시민성교육 시행 기관 및 이해관계자

37 2.4. 팬데믹 기간 동안의 시민성교육

2 클러스터 설문조사

'학습도시의 시민성교육 이행 현황'

코디네이터 도시와 UIL은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활동의 일환으로 세계시민성교육 이행에 따른 회원도시들의 정책과 우선순위, 기회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2020년 5월부터 실시하여 모든 회원도시들에게 전달되었고, 총 18개 도시가 설문을 완료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은 각 도시가 수립한 시민성교육 활성화 정책과 협업 사례, 정책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대상 그룹, 도시별 관심 주제 및 모범사례, 특히 시민성교육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과 클러스터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별 향후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도시는 인구가 10만 명에서 35만 명 사이이며, 인구가 80만 명 이상인 도시는 3곳, 10만 명 미만인 도시은 3곳입니다. 한국과 그리스의 여러 도시가 조사에 참여했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유네스코 GNLC활동에 점점 더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본 설문에 참여한 회원도시의 유네스코 GNLC 가입연도 및 인구수입니다.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도시

핀란드 에스포(2015),
브라질 콘타젱(2017), 기니 은제레코레 (2017),
그리스 라리사(2017), 독일 겔젠키르헨(2017), 그리스 이라클리온(2019)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회원도시에 한함

대륙 및 국가	도시	GNLC 가입연도	인구(명)
아프리카			
기니	은제레코레	2016	195,330
아시아·태평양			
이란	시라즈	2017	1,700,687
대한민국	부천시	2016	869,165
	광명시	2016	350,547
	연수구	2019	340,618
	당진시	2016	165,374
태국	차층사오	2020	38,645
유럽·북아메리카			
터키	이즈미르	2020	4,367,251
핀란드	에스포	2016	295,000
독일	겔젠키르헨	2016	257,651
폴란드	그디니아	2019	246,204
벨기에	샤를루아	2020	202,376
그리스	이라클리온	2016	173,993
	라리사	2016	162,000
	코린트	2020	58,192
프랑스	에브리-쿠쿠론	2019	69,080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연안			
브라질	콘타젱	2016	648,766
니카라과	레온 산띠아고 데 로스 까바예로스	2020	290,619

출처: https://uil.unesco.org/lifelong-learning/learning-cities/members

설문에 참여한 클러스터 회원도시 (18개 도시)

아프리카 기니(은제레코레)

아시아·태평양 이란(시라즈) / 대한민국(부천시, 광명시, 연수구, 당진시) 태국(차층사오)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연안 브라질(콘타젱) / 니카라과(레온 산띠아고 데 로스 까바예로스)

유럽·북아메리카 터키(이즈미르) / 핀란드(에스포) / 독일(겔제키르헨) / 폴란드(그디니아) / 벨기에(샤를루아) / 그리스(이라클리온, 라리사, 코린트) / 프랑스(에브리-쿠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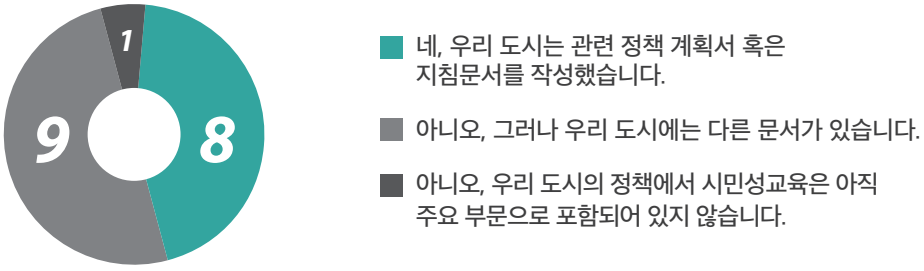
2.1 시민성교육 활성화 정책

학습은 시민 발전의 핵심이고 교육은 학습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면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해소하려면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18개 도시 중 17개 도시는 시민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응답 도시 중 절반 가까이가 되는 8개 도시에서는 시민성교육 활성화 계획 또는 지침 문서를 세웠습니다. 9개 도시는 시민성교육 촉진을 위해 국내외 정책, 안내서와 지침서, 지역발전 및/또는 교육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개 도시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도시별 시민성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 현황(총18개 도시 응답)

도시별 시민성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 현황

도시의 수



거의 모든 도시에서 정책 수립의 주된 목적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활동을 촉진하고,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전 연령대의 참여를 독려하고, 평생학습과 적극적인 시민성의 이점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구 규모, 지역 지리, 문해율(광범위한 차이를 보임),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의 포용 의지, 여러 대륙의 도시가 사회적 문제를 겪는 정도와 같은 요인이 도시의 시민성교육 활성화 정책에 유일무이한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의 정책에 시민성교육을 포함하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조직된 방식으로 특정 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에게 정책과 사업을 가시적으로 확실히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각 도시의 비전을 발전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 입증됩니다. 지방 당국이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면, 시민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독단적인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통합된 공공서비스의 형태로 일관되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에스포

에스포시에서 **세계시민성**은 포괄적 역량(지식, 기술, 가치, 태도)을 개발하는 핀란드의 **핵심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다뤄지기에 매우 눈에 띕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시민성을 고취하는 **도서관법**과 **청년법** 외에도, **참여하는 에스포**(Participatory Espoo)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고안된 부문 간 개발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통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협력합니다. 에스포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의사 결정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에스포시는 개방정신을 통해, 그리고 직원 및 선출직 공무원을 교육함으로써, 자신감을 더욱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et's create THE ESPOO STORY together

에스포 스토리(Espoo Story)는 선출직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에스포시의 핵심 홍보정책입니다. 에스포시는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개방형 질문과 지도에 표시된 답변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수집한 시민들의 의견을 도시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은제레코레

은제레코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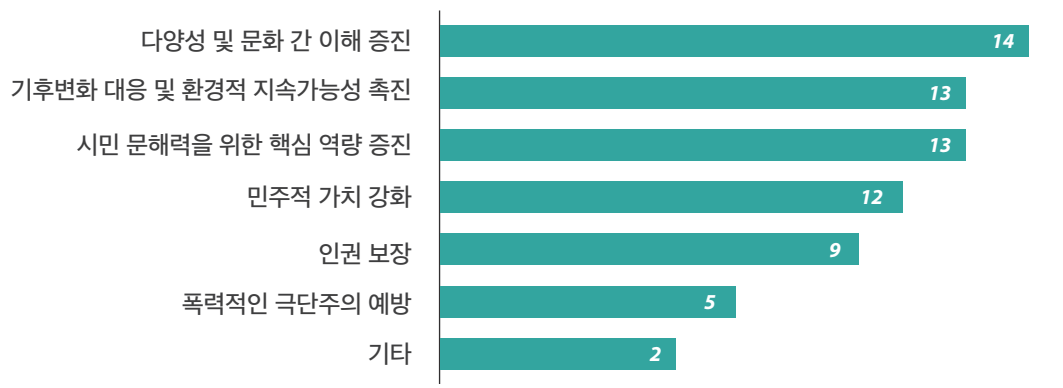
은제레코레시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의 지역 발전 계획에는 시민의 선거 과정 참여, 환경 정비, 평화와 사회적 결속의 보존, 성평등 증진, 납세, 공공재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우선 조치사항을 포함합니다. 은제레코시는 주로 폭력,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 등 모든 형태의 차별과 어린이 보호와 같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제 영역

더 포용적이거나 더 민주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유일한 방법이나 최고의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마다 자체의 요구 사항과 우선순위를 정하며, 여기에 제시된 주제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도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체 정책에 따라, 도시는 다양성과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며, 시민 문해력을 위한 핵심 능력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도시에서는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반면,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도시의 주요 관심사는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림 2: 도시별 시민성교육 관심주제 영역(총18개 도시 응답)

도시별 시민성교육 관심주제 영역



일부 도시는 선거 과정 참여의 독려와 포용성, 성평등, 비차별적인 문화, 문화유산의 장려, 도덕, 지혜, 행복과 같은 시민의 웰빙과 관련된 자질 향상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그림 2).

이라클리온

이라클리온시

이라클리온시는 다양성 및 문화 간 이해 증진과 관련하여 '모두에게 적합(Fit for All)'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이민자가 사회와 직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문화 간 이해를 위한 지역행사를 조직합니다.

에브리-쿠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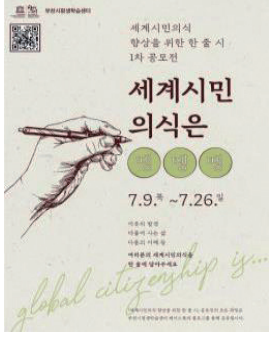
에브리-쿠쿠론시에서는 여러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 아동 대상의 **모국어로 된 이야기 낭독과 워크숍**을 조직하여 도시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증진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꿈꾸고 행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예술, 과학, 스포츠 분야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인종, 종교, 문화와 관계없이 인간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협력 프로젝트에서 창의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천

No prejudice, and you see a bigger world.

부천시는 **인문학**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이 적극적인 시민성을 갖도록 장려하고, 시민 문해력을 위한 핵심 역량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한 줄 시 공모전**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민들은 세계시민성과 그와 관련된 지역 활동을 담아내기 위해 창의적인 한 줄 시를 씁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수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참가자는 물론 더 넓은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한 줄 시 확산을 위해 디지털 월페이퍼와 볼펜을 제공합니다.



라리사

라리사시의 **시민대학**은 모든 시민을 위해 학습을 촉진하고 **변혁적인 사고**와 행동을 독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시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예술을 통한 교육', '부모 학교', '어르신 대상 디지털 학습', '교통안전교육'등의 과정과 교육자 대상 교육의 이슈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의 시민성교육 특강을 개설합니다. 이러한 운영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정교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걸쳐 수렴한 결과입니다.

라리사시

또한, 도시는 지역사회와 글로벌 공동체를 대상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조직합니다.

당진

당진시

당진시는 시민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당진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더 넓은 세상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합니다. '인간의 가치 탐구', '예술을 통한 시민의 힘'과 같은 과정은 시민의 사고와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자율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즈미르

이즈미르시는 민주적 가치의 강화를 주제로 **도시** 전체를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수준에서 사회적, 문화적 연대를 제공하는 **교육 캠퍼스**로 구상합니다. 이즈미르시는 **집단 지혜**를 촉진하여 시민들이 삶의 모든 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모바일 오피스** 사업 추진을 통해 시장은 도시 전역의 지역을 방문하고,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분산시켜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지역주민들을 결정에 참여시키며, 모든 주민과 마을에서 창출한 부를 분배합니다.

시라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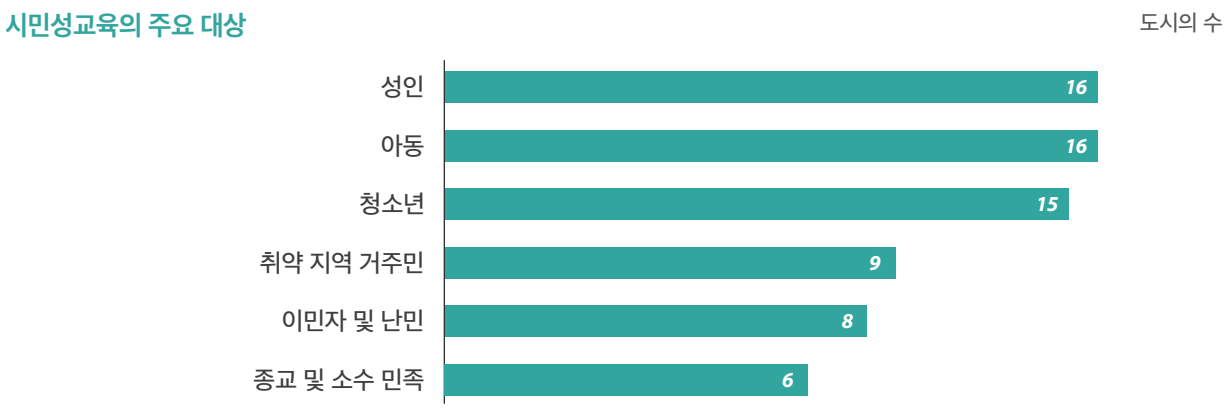
시라즈시는 기후변화와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과 관련하여 **주거 단지**에서 아동을 위한 시민성교육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에서는 도로 안전, 고형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녹지 관련 문제를 중점에 두며, 환경 문제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시민성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책**도 출간합니다.

시라즈시

2.2 시민성교육의 주요 대상

도시는 대부분 자원과 권력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의 목표 대상을 판단합니다. 성인, 청소년, 아동은 도시 차원에서 시민성교육과 관련이 높은 교육 대상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도시 중 절반은, 특히 대부분 유럽 도시는, 낙후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자/난민, 소수 민족/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현재 유럽의 경제 및 난민 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그림 3). 그러나 난민 위기는 유럽이 경험하는 위기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난민들이 떠나가는 나라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위기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림 3: 시민성교육의 주요 대상(총 18개 도시 응답)



대상의 취약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시민의 교육적 욕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습도시는 취약 집단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호 연결된 오늘날의 세상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가 가진 취약성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일 뿐, 우리 각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세계와 발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여러 집단의 시민들에게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시민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네트워킹을 장려하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차층사오

차층사오주

차층사오주는 도시 중심부에 도서관, 활동 공간, 전시장, 연극, 음악, 무용을 위한 연습실, 컴퓨터 실험실, 카페, 회의실, 강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사람들의 발전을 촉진하고 '고정관념을 깨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차층사오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공급하며 네트워크 파트너와 협력하여 도시 지역의 모든 가정에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질의 책과 학습자원을 배포하는 '책 읽는 도시' 사업을 통해 도시의 학습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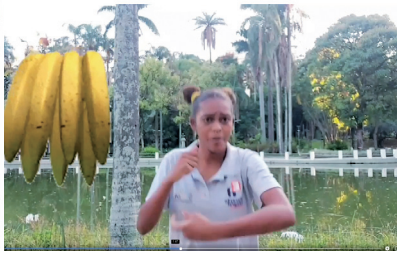
연수구

연수구

연수구의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익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 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모든 마을을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로 만드는 것으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마을활동가가 교육을 통해 기술을 향상하며, 재난 캠프를 만들거나 마을신문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조직하는 **공간과 인적 자원의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많은 도시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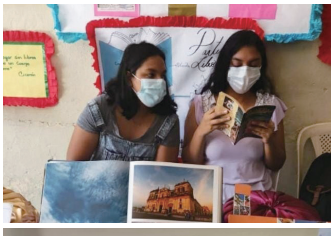
콘타젱



콘타젱시

콘타젱시는 **온라인 종합 작업실**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춤, 드라마, 음악, 예술과 공예, 환경 교육과 지속가능성, 시민성 가치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소셜미디어(왓츠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형태는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고령자가 계속 활동하도록 독려하고, 교사 및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면서, 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에 대한 지원을 받게 합니다. 모든 연령대의 학생과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 가족 구성원, 이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레온 산띠아고 데 로스 까바예로스



레온 산띠아고 데 로스 까바예로스시

레온 산띠아고 데 로스 까바예로스시에서 시행 중인 정책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기량을 갖추도록 구성된 **구체적인 학습 전략, 내용, 기준, 자료**를 통해 청소년과 아동에게 시민성교육을 알리는 것입니다.

에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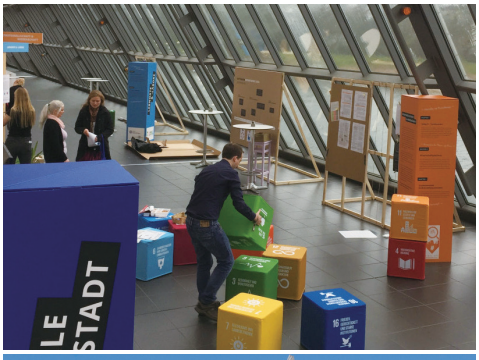
에스포시는 8학년 학생들이 청소년과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치고**(GutsyGo, 배짱 있는 시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에서 평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 수 있도록 난민들을 위한 아이스하키 수업을 주선하며, 이는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거치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에스포시의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사진을 디지털화하도록 도왔습니다.

광명

광명시의 **아고라로 디딤!**사업은 **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10대를 위한 민주시민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토론과 모의선거를 통해 공익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인권아, 놀자**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겔젠키르헨

겔젠키르헨시에서는 주로 어젠다21(aGEnda 21)관리국과 '시민대학(Volkshochschule)'에서 모든 연령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성 교육을 제공합니다. **컬리지 21**(Kolleg21)은 루르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학제 간 연수생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종종 연구 중심의 학업을 보완해주는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발전(ESD)과 프로젝트 및 이벤트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참가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변화의 증폭자이자 주체 역할을 하도록 교육합니다. 어젠다21관리국은 특정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실제로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추가로 진행되는 워크숍은 글로벌하게 생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현지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겔젠키르헨시

이라클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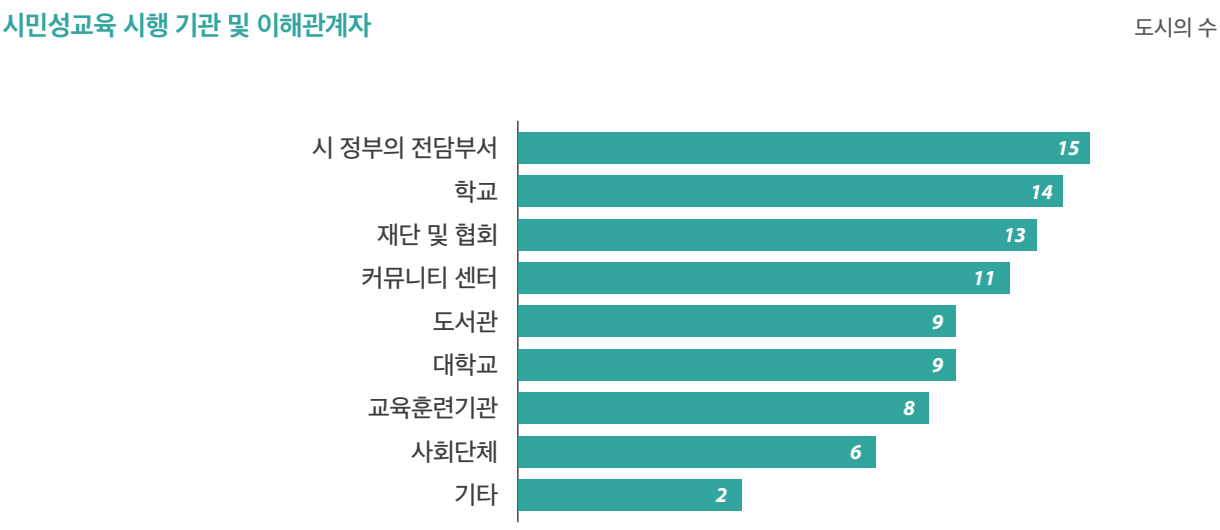
이라클리온시의 **스토리텔링** 사업은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으로 여러 세대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라클리온시

2.3 시민성교육 시행 기관 및 이해관계자

대부분의 도시(18개 중 15개 도시)에는 도시 차원에서 시민성교육 활성화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중 두 도시는 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지침을 받습니다.

그림 4: 시민성교육 시행 기관 및 이해관계자(문항별 복수 응답 가능)



사업의 실행은 각 도시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에 달려 있습니다. 설문 참여 도시의 거의 절반(대부분 유럽 도시)은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시민성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지방 시스템과 지방 정부, 대학, 교육훈련기관, 재단, 협회, 학교,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사회단체, 청소년 단체와의 파트너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기관과 조직의 활동에는 세미나, 회의, 공개 토론, 이벤트, 교육훈련 프로그램, 학생과 교사 대상 워크숍, 자문 및 참여 위원회 주최 및 조직, 물자 지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간행물 준비,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비즈니스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와 재단/협회는 대부분의 도시(18개 중 15개 도시)가 관내에서 시민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시민성교육은 교육기관의 철학, 과정 개발 및 활동(예: 학생과 교사를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워크숍)에 통합되며 재단 및 협회의 공공-민간 네트워크 개발은 사업의 시행, 연구, 아이디어와 모범사례 교환에 기여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센터**는 대부분의 도시(18개 중 11개 도시)에서 시민성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어떤 경우, 시민성교육을 촉진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교육훈련기관**이 학교보다는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18개 중 9개 도시). 모든 도시에 대학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학이 있는 도시에서 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참여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 분야는 시민성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도시에게 강력한 동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시가 고등교육 분야에서 제공하는 자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학은 도시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교육기관이 학습을 도구화하지 않고, 학습자를 단순히 소비자 및/또는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가진 자원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은 도시의 시민성 학습 의제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많은 의제가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의 경우, 밀물이 모든 배를 뜨게 하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경제가 호황일 때마다 상대적 빈곤이 증가했습니다. 대학은 시민성교육 추진사업을 통해 핵심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설문 참여 도시 중 절반에서 시민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서관의 기여 사례로는 차층사오주의 도서관과 학교가 사회 과학, 지리학, 경제, 환경 과학, 스포츠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교육 주간'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문화 활동**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음악 대학, 예술 대학, 박물관, 미술관, 극장과 같은 문화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도시가 이러한 기관들이 지닌 강력한 자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과 문화 기관은 학습 공간으로서, 자신들의 핵심 영역 기술을 지원하고 개발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경험 수준을 높이고 훨씬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이런 기관들은 대중의 상상력이 꽃피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도시에게 상상력의 힘은 계획하거나 가르치는 힘만큼 중요합니다. 대중의 상상력은 계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관들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하고, 미래의 꿈을 탐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많은 경우, 도시는 각종 적응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회복력 있고 민주적인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튼튼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디니아

그디니아시의 **어반랩**(UrbanLab)은 실제 방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사회 자본**을 개발하고, 시민, NGO, 기관, 과학 및 비즈니스 공동체 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공통된 문제**를 진단하며,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만남의 장이자, **기술과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교류센터**는 시민들이 **여가 시간에 흥미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센터의 운영 관리를 맡겨** 상향식 자기주도활동을 촉진합니다. 참여 활동, 운영 행사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 지식 교환이 이 센터의 핵심입니다.

또한, 실험과학센터는 **모든 연령이 '재미를 통해 배우는'** 원리를 함양하고 창의적인 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놀이터' 역할을 합니다. 이 센터는 과학을 장려하고, 현대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고, 열정과 호기심을 고취시켜 지식 교환을 위한 유럽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문명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공익 강화 활동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디니아시

코린트

유네스코 GNLC의 새로운 회원도시인 **코린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강력한 지역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목할 만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코린트 시는 팬데믹 시기 동안 교사 지원 방안에 대한 회의를 주최하여 450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오늘날의 학습도시 체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많은 도시가 시민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협의회, 지역주민 협의회, 공개회의, 청소년 협의회를 조직하고 육성했습니다.

연수구

연수구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여 구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주민자치 정책,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모범사례, 세계시민성교육으로 구성된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을 제공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제안을 취합하고 추진 사업을 정하기 위해 투표(전자 및 현장 투표)를 실시합니다. 주민들은 **온라인 공동주택관리 플랫폼**에서 전자투표를 하며, 이를 통해 구와 주민 간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플랫폼에는 전자투표 외에도 디지털 음성 방송과 입주민 라운지 기능이 있습니다.

에스포·이즈미르

에스포시 노인 협의회(Council for the Elderly)와 **이즈미르시 장애인 협의회**(Council for Disabled)가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많은 도시에서 시민성교육은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실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에브리-쿠쿠론

에브리-쿠쿠론시

에브리-쿠쿠론시는 어린이 퍼실리에이터가 주관하는 **어린이 시의회**를 운영합니다. 이 의회는 **제도적 발견**(시청의 역할, 시민의 권리, 선출된 공무원의 기능)과 **어린이들이 제안한** 지역주민 대상 사업에 초점을 맞춘 워크숍을 매주 개최합니다.

샤를루아

샤를루아시에서는 5개의 **참여 시민 평의회**(구마다 1개씩 설치)가 도시와 주민 간의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 성평등, 동물복지와 같은 특정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자문단**이 조직되었습니다.

라리사

라리사시의 **청년 협의회** 목표는 청년과 지역 당국 간의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18세~30세의 청년들이 사회정치적 삶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운영 첫해에 250명의 청년들이 협의회에 가입했고, 10개 이상의 인식 제고 및 교육 활동이 운영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라리사시는 로마족 청소년들과 6세~17세 사이의 학생들을 위한 시의회 시뮬레이션을 주최하였습니다.

라리사시

2.4 팬데믹 기간 동안의 시민성교육

코로나19가 전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적, 경제적 의제를 휩쓴 해에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시민성교육이 팬데믹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습니다. 15개 도시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을 독려하는 것이 팬데믹 대처의 핵심이라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시민성교육이 중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가 15만 명 5개 도시(당진시, 라리사시, 연수구, 시라즈시, 에스포시)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자원봉사활동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도시는 민주적 가치 강화와 인권 보장처럼 특정 이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시민성교육과 사회적 가치(책임감 있는 행동, 주민 및 지역공동체와의 소통 유지, 권리 및 사회적 의무 인식)의 중요성과 영향이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시라즈시에서는 시민과 민간단체가 자가격리자를 위한 도시락 제공, 위생용품 배부, 외국어 서비스 등 취약계층과 의료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겔젠키르헨시**는 디지털 자원에 접근할 수 없거나 사회경제적로 불리한 시민을 대상으로 이웃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팬데믹 관련 시민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레온 산 띠아고 데 로스 까바예로스시**는 권장사항과 예방 조치, 학생들에게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는 새로운 방법론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호별 방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술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포시는 100가지 언어로 **질문에 응답하는 스마트봇**을 개발했으며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협력하여 **상담전화 핫라인**을 개시했습니다. **라리사시**는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팬데믹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온라인 공개 토론에 참여하고, 작가들의 온라인 동화책 낭독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포털**을 만들었습니다. **부천시**는 지역 단체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평생학습 e-스튜디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전통적인 시공간을 넘어 학습 확장을 위한 기술의 사용이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기술은 하루 24시간 다양한 채널과 여러 형태로 지식에 대한 접근과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전환점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 학습을 포함하고 더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을 즐기는 것이 더욱더 쉬워지고 흥미로워집니다.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려는 도시의 노력과 더불어 특히 성인을 위한 양질의 시민성교육을 제공하는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면역 반응, 위생 습관, 사별 등 중요한 학습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대하며 함께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 연대를 인정하는 것은 이 세상에 희망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회경제적 규모에서 더 낮게 여겨졌던 사람들(그리고 급여도 적게 받던 사람들)이 최전선에서 우선적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의료 종사자,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영웅적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학적 지식과 가족의 중요성, 자녀를 돌보고 안아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론 및 미래 전망

3 결론 및 미래 전망

거친 바람이 닥친 창백한 광장.
어둑어둑 빛이 떨어진 밤.
어둠 속 노래는 새벽을 염원하고,
이 겨울, 우리는 봄을 찾습니다.
달빛 안에서 사랑스러운 새싹들이 움트고
우리는 함께 사라지지 않을 희망을 부릅니다.

•

고남석, 연수구청장, 2021

이번 팬데믹으로 우리는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중요성과 사회 시스템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불안, 난민 위기, 지속적인 기후 위기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기는 지구가 직면한 실존적 위협을 훨씬 더 심각하게 합니다. 도시가 앞으로 나아가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좋은 정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려면 계속 학습해야 합니다.

도시가 직면한 위기, 불의, 기타 여러 문제들을 헤쳐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은 학습과 교육인 것 같습니다. 성인교육의 기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민성교육 과정 및 전문 실습의 모델로 학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학습과 교육 과정, 프로그램, 건강관리, 예방 조치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시민성교육은 무엇보다 도시가 학습이 그 도시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성명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는 도시 정체성의 중심에 있습니다. 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함께 사는 방식입니다. 더욱이 독일의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알렉산더 클루게(Alexander Kluge)와 철학자 오스카 넥트(Oskar Negt)는 '민주주의는 교육과 학습의 과정[1)]' 으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매일 반복해서 배워야 하는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인식된 사회 질

서'입니다. 이러한 정의 외에도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도시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인 공개 토론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듣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복잡한 생각을 이해하고,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음모론을 꿰뚫어 보는 능력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에 대한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가짜 뉴스와 사실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사실이라고 여겼던 것이 다음 시대에는 더 이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 자체가 학습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사고와 반성은 복잡하고 도전적이며 학습도시의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학습 과정에서 개인은 마음을 바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적 행동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류를 이롭게 하도록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세상에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말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등과 민주주의를 초월한 이 새로운 사고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별히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의견들을 공개 담론에서 다루면 마음을 열고 현대 세계의 복잡성을 더욱 현명하게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학습 조직, 역동적인 정책 기획, 제도적 유연성, 기술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발전하도록 돕는 글로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Pale squares under rough winds.
It's a dim night.
The song in the dark, praying for the dawn.
This winter, we shall bring Flora.
Daring buds spring in the moonlight.
Hopes we sing together that never let go.

Nam-seok Ko,
Mayor of Yeonsu-gu, 2021

1) Kluge, A. and Negt, O. (2014). History and Obstinacy. New York: Zone Books, p. 452.

마무리하며

시민성의 책임은 나이와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개인은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시민은 진리, 과학, 이성을 주장하며,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2020년 11월 12일과 13일에 개최된 유네스코 GNLC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국제회의의 주요 결론입니다. 또한, 2020년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설문조사에서 시민성의 핵심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회원도시의 행동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위기뿐만 아니라 현재의 팬데믹과 같은 상황은, 시민성교육이 글로벌 문제에 대해 지역적 그리고 전 지구적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안전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미래로 가는 다리를 건설하려면 시민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개인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환경을 돌보고, 현재의 문제와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응책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모범사례에서는 시민성교육이 자존감, 권한부여, 창의성, 비판적 성찰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모두 달성하려면, 이러한 형태의 시민성 배양이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 몇 년 동안 명백해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치면서 시민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또한, 이 위기는 시민성교육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역 및 세계 안보와 번영은 모든 사람을 '탑승'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지역사회도 이 흐름으로부터 배제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ICLC 5)가 '대응을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학습을 통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이라는 주제로 2021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학습도시가 어떻게 회복력을 지니고, 보건 교육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성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민성교육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코디네이터 도시 라리사시와 연수구, 그리고 GNLC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의 모든 회원도시에게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회복력을 지닌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시민성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 팀장

라울 발데스-코테라

별첨

유네스코 GNLC 세계시민성교육 클러스터 회원도시

그리스: 코린트 Corinth, 이라클리온 Heraklion, 라리사 Larissa, 테르미 Thermi

기니: 은제레코레 N'Zérékoré

니카라과: 레온 산띠아고 데 로스 까바예로스 León Santiago de los Caballeros

대한민국: 광명시, 구미시, 나주시, 남구(부산), 당진시, 부천시, 수성구(대구), 연수구(인천), 유성구(대구), 은평구(서울), 전주시, 진천시, 통영시

독일: 겔젠키르헨 Gelsenkirchen

러시아 연방: 카잔 Kazan

베트남: 사덱 Sa Dec, 빈시티 Vinh City

벨기에: 샤를루아 Charleroi

브라질: 콘타젱 Contagem

세네갈: 게쟈와이 Guédiawaye

아제르바이잔: 바쿠 Baku

요르단: 암만 Amman

우크라이나: 멜리토폴 Melitopol

이란 이슬람 공화국: 하슈트거드 뉴타운 Hashtgerd Newtown, 카샨 Kashan, 마슈하드 Mashhad, 시라즈 Shiraz, 테헤란 Tehran, 야즈드 Yazd

이집트: 아스완 Aswan

이탈리아: 루카 Lucca

콜럼비아: 보고타 Bogotá, 산띠아고 데 칼리 Santiago de Cali

태국: 차층사오 Chachoengsao, 푸켓 Phuket

터키: 아피온카라히사르 Afyonkarahisar, 발리케시르 Balikesir, 이즈미르 Izmir

포르투갈: 알코바사 Alcobaça, 아나디아 Anadia, 바탈랴 Batalha, 카마라 드 로부스 Câmara de Lobos, 곤도마르 Gondomar, 라고아-아코레스 Lagoa-Açores, 로르스 Loures, 세투발 Setúbal

폴란드: 그디니아 Gdynia

프랑스: 에브리-쿠쿠론 Évry-Courcouronnes, 망트라졸리 Mantes-la-Jolie

핀란드: 에스포 Espoo

호주: 멜톤 Melton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Feldbrunnenstr. 58
20148 Hamburg, Germany

Website: https://uil.unesco.org/
Tel: +49 40 44 80 41 12
Fax: +49 40 41 077 23

라리사시(그리스)

Municipality of Larissa Greece

Ionos Dragoumi 1, 41222
Larissa, Greece

Email: learning-city@larissa.gov.gr
Website: https://www.larissa.gov.gr/en/
Facebook:
•Δήμος Λαρισαίων
•Larissa Learning City - Η Πόλη που Μαθαίνει

연수구(대한민국)

Municipality of Yeonsu-Gu Repulic of Korea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평생교육과, 21967

Tel: 032 749 7279
Website:
https://www.yeonsu.go.kr/foreign/english/
Facebook
•togetheryeonsu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